

KIA 6년만에 우승...김기태의 동행야구, 위기 딛고 결실

2012년 감독생활 시작 후 첫 정규시즌 우승...2014년 KIA지휘봉 리빌딩 이끌며 '동행정신' 발휘...올시즌 끝으로 3년 계약 끝나

김기태 감독의 동행야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KIA가 2009년 이후 8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KIA는 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 원정경기를 가졌다. KIA가 10-2로 앞선 9회말 2위 두산이 잠실 SK전에서 2-3으로 패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정규시즌 최종전 우승 확정 은 역대 5번째로 전 구장 시즌 마지막 날 확정은 2004년 현대 이후 13년 만이다. 김기태 감독 개인적으로는 첫 정규시즌 우승이다. 지난 2012년 LG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김기태 감독은 2013년 LG를 시즌 2위로 이끌며 10년 연속 포스트시즌 탈락 잔혹사를 겪었다. 2014년 시즌 초반 자진 사퇴하며 LG를 떠났지만 그해 말 KIA 지휘봉을 잡았다.

KIA는 2012~2014년 3년 연속 가을야구에 실패하며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 2015년 김 감독 부임 첫 해 김선빈·안치홍의 군입대로 전력 약화가 뚜렷했다. KIA는 리빌딩으로 노선을 결정했고 고참 선수 중심으로 팀 분위기를 바꿨다. 나이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 2015년 첫 해 7위에 그쳤지만 기대이상 가능성을 보여준 KIA는 2016년 내친김에 5위로 와일드카드에 올랐다. LG에 1승 패하며 2경기 만에 가을야구는 끝났지만 젊은 선수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즌 후에는 특급 FA 최형우를 영입하며 대권 준비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동행정신'이 있었다. FA 영입을 앞두고 고참 선수들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구단과 코칭스태프의 독단이 아닌 선수단까지 팀 전체가 다같이 움직였다. 그 결과 최형우는 4번타자로 빠르게 KIA에 융화됐고 팀 성적 상승으로 직결됐다. 지난 4월12일부터 1위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 시즌 내내 1위를 달렸지만, 고비가 계속 있었다. 시즌 초반 로저 버나디나와 김주찬이 부진을 거듭하며 시름을 안겼다. 외국인 투수 팻딘도 시즌 중반 불안한 투구를 이어가며 퇴출설이 불거졌다. 고정 마무리 없이 불펜 문제는 끝까지 갔다. 장기간 1위를 달렸지만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던 무려 13경기 차이로 앞서있던 두산에 공동 1위를 허용할 때만 하더라도 위기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분위기를 살렸다. 김 감독이 믿음을 준 선수들은 부침을 딛고 살아났다. 결국은 마지막 고비까지 넘고 동행정신으로 정규시즌 우승까지 완성했다.

김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KIA와 3년 계약이 끝난다. 시즌 전 스포츠클럽 때부터 KIA 선수들은 "감독님의 재계약을 위해 올해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만고 끝 정규시즌 우승을 넘어 한국시리즈까지 대권을 보는 KIA. 김 감독 체제 장기 집권이 눈앞이다.

KIA, 1차 지명 한준수 등 신인 11명과 계약

한준수, 계약금 1억6000만원 등 총액 1억8700만원...김유신은 1억6700만원



KIA 타이거즈 2018년도 1차 지명 신인 한준수.

2017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2018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1차 지명선수인 포수 한준수(동성고)와 계약금 1억6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계약을 체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준수는 우투 스위치히터다. 185cm, 90kg의 체격에 어릴 때부터 줄곧 주전 포수로 뛰며 공수 양면에서 수준급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신체조건이 뛰어나면서도 유연해

공격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포수 재목이다. KIA가 1983년 조종규, 1986년 장채근, 1989년 장호익, 1990년 정희열, 2000년 김성호에 이어 6번째로 선정한 1차 지명 포수다. 신인 2차 라운드 1순위로 선택한 투수 김유신(세광고)과는 계약금 1억4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김유신은 188cm, 85kg의 체격을 지닌 좌완이다. 빠른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140km대 직구를 던지며, 커브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가 뛰어난다는 평가다. 제구가 안정적인데다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춰 선발투수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2라운드에서 지명된 투수 하준영(상남고)과는 계약금 1억1000만원과 연봉 2700만원에, 3라운드에서 뽑은 투수 이원빈(부산고)은 계약금 9000만원 등 총액 1억17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뉴스스

K리그 클래식, '운명의 5경기' 스플릿 라운드 대진 확정

오는 14일 막 올려 다음달 19일 최종전

한 해 농사를 결정할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의 스플릿 라운드 대진이 확정됐다. 순위 싸움을

위한 마지막 혈투인 만큼 매라운드 백매치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K리그 클래식 스플릿 라운드는

14일 막을 올려 다음 달 19일 최종전까지 팀 당 5경기씩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위스플릿 6개 팀은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을 위해, 하위스플릿 6개 팀은 클래식 잔류를 두고 일전을 벌인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시즌 리그 최종전에서 만났던 전북과 FC서울은 스플릿 첫 라운드부터 마주한다. 35라운드에는 K리그 최고 흥행매치인 서울-수원의 슈퍼매치가 마련됐다. 현재 K리그 클래식 1,2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과 제주는 36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이 경기는 시즌 트로피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이다. 강등을 피하려는 하위 스플릿에서도 치열한 승부는 계속된다. 34라운드 상주-대구, 35라운드 대구-인천, 36라운드 상주-전남, 37라운드 전남-인천은 상위 스플릿 못지않은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스플릿 라운드 일정 및 대진

<상위스플릿>	
▲34라운드 제주: 강원 (10.14(토)) 15:00 제주월드컵경기장 전북: 서울 (10.15(일)) 15:00 전주월드컵경기장 수원: 울산 (10.15(일)) 15:00 수원월드컵경기장	전북: 제주 (10.29(일)) 15:00 전주월드컵경기장 수원: 강원 (10.29(일)) 15:00 수원월드컵경기장
▲35라운드 서울: 수원 (10.21(토)) 15:00 서울월드컵경기장 강원: 전북 (10.22(일)) 15:00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제주: 제주 (10.22(일)) 15:00 울산수주국경기장	▲37라운드 강원: 서울 (11.04(토)) 15:00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울산: 전북 (11.05(일)) 15:00 울산수주국경기장 - 제주: 수원 (11.05(일)) 15:00 제주월드컵경기장
▲36라운드 서울: 울산 (10.28(토)) 15:00 서울월드컵경기장	▲38라운드 - 서울: 제주 (11.19(일)) 15:00 서울월드컵경기장 - 전북: 수원 (11.19(일)) 15:00 전주월드컵경기장 - 강원: 울산 (11.19(일)) 15:00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유소연(가장 왼쪽), 박성현(가운데), 렉시 톰슨.

유소연-박성현-톰슨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진검승부

세계랭킹 10위내 총출동...KLPGA 투어 강자도 도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 2위 박성현(24·KEB 하나은행), 3위 렉시 톰슨(미국)이 한국에서 샷대결을 펼친다. 12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 스퀘어172 오션코스(파72·6316야드)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우승상금 30만 달러)'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아시아 스윙의 첫 번째 무대다. 세계랭킹 1~3위를 포함해 10위 이내 선수 전원이 빠짐없이 출사표를 던졌다. 7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첫 탈락 없이 우승을 다툰다. 특히 세계랭킹 1~3위 유소연, 박성현, 톰슨은 지난날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20여 일 만

에 한 무대에 선다. 올 시즌 나란히 2승씩을 챙긴 세 선수는 올해의 선수와 상급랭킹 등 주요 부문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유소연(150점)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톰슨(147점)과 박성현(130점)이 추격하고 있다. 상급순위에서는 박성현(190만 9667달러)이 1위에 올라 있고 유소연(178만6524달러)과 톰슨(166만 3957달러) 순이다. 우승 상금 30만 달러가 걸려 있어 대회 결과에 따라 올해의 선수와 상급 순위 모두 선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즌 종료 후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린 'CME 글로벌포인트'에서도 톰슨(3221점), 유소연(2691점), 박성현(2619점)이 경쟁

중이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톰슨(69.015타)이 박성현(69.092타)에 근소한 차로 앞서 있다. 유소연(69.667타)은 6위다. 세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 LPGA 투어 우승자 15명이 출전해 첫 아시아인 스윙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강자들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KLPGA 투어에서는 다승과 상급, 평균타수 대상포인트 등 4개 부문 1위를 질주하는 이정은(21·토니모리)을 비롯해 3승의 김지현(26·한화), 2승을 거두고 있는 오지현(21·KB금융그룹)과 고진영(22·하이트진로)이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8월 프로로 데뷔한 최혜진(18·롯데)도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며, KLPGA 드림투어 상급순위 1위 이슬라(27)도 신데렐라를 꿈꾼다.

'햄스트링 부상' 양학선, 세계선수권 결선서 기권

'도마의 신' 양학선(25·수원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 결선에서 기권해 아쉬움을 남겼다. 양학선은 9일(한국시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7회 국제체조연맹(FIG)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 도마 결선을 앞두고 기권했다. 예선 1위를 차지한 양학선은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개를 떨궜다. 양학선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체조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2011년 도쿄, 2013년 엔트워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속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인방에서 열린 인천

아시아체임에서 견재함을 과시했지만 같은 해 난닝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착지 도중 넘어져 7위에 머물렀다. 햄스트링으로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훈련 도중 이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으로 올림픽 2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견재함을 과시하며 2018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안게임,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